



사막에 내리는 단비 - 사랑의 의료봉사

서영호 기자 / 평화신문 · 평화방송

눈부신 하늘과 드넓은 초원을 지닌 몽골은 1년 중 260일 가량이 맑은 날씨라서 '푸른 하늘의 땅(Land of Blue Skies)'으로 불린다. 그러나 몽골은 영아사망률이 100명당 52명에 달할 정도로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의료의 오지'다. 의료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이곳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선교 봉사단이 사랑과 인술(仁術)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다. 그들의 의료봉사 활동을 동행 취재했다.

9월 5일 아침, 한국에서는 이미 퇴출된 20인승 중고 버스와 승합차 1대가 몽골 초원을 달렸다. 차량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형옥 교수) 17명과 몽골 현지인 통역 8명이 타고 있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바라본 몽골의 낡은 판잣집들은 영락없이 1960~197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듯했다. 한때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호령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목적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터브(Tov) 도에 있는 자갈란트(Zagalant) 마을. 주민 6,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자갈란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면소재지쯤 되는 마을로 주민들은 대부분 목축과 감자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해외의료선교단 첫 봉사활동 지역으로 이곳을 찾았다. 치유봉사를 통해 복음전파에 이바지하고자 그동안 가톨릭병원협회 차원에서 실시하던 의료봉사활동을 올해부터 회원 병원 및 각 직능단체가 모두 동참하는 의료선교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꼬박 3시간을 달려 자갈란트에 도착한 버스는 마을 보건소 앞에 멈췄다. 보건소장 바름칙직 씨와 직원들이 의료봉사단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봉사단 일행은 도착

하자마자 마을 보건소에 내과, 안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외과 등 6개 진료실과 검사실, 약제실을 마련하고 진료 준비를 서둘렀다. 배편으로 미리 보낸 트럭 한대 분량의 각종 의료기구와 검사기기, 각종 약들을 정돈해 놓으니 제법 병원다운 모습을 갖췄다.

봉사단에는 단장 김형옥 교수를 비롯한 전문의 6명, 간호사 3명, 약사 3명, 이문환 신부와 가톨릭의료협회 윤학식 사무국장 등 17명이 참여했다. 또 몽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감안해 거즈와 반창고 같은 기본 소모품부터 3,000여만 원





진료가 시작된 날 아침, 한산하던 보건소 앞은 일찍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진료를 받겠다고 밀쳐대는 때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대부분 의료봉사단에서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약도 준다니까 집에서 3시간 이상 걸어서 온 사람들이었다.

상당의 의약품과 돋보기안경, 혈액검사기, 수백만 원짜리 '세극등 현미경(Slit Lamp)' 까지 꼼꼼히 챙겨왔다. 한마디로 한국의 어지간한 중급병원을 몽골로 옮겨온 셈이다.

본격 진료가 시작된 6일 아침 한산하던 보건소 앞은 일찍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진료를 받겠다고 밀쳐대는 때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앞마당은 주민들이 타고 온 말과 차들이 한 줄로 주차됐고, 입구는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진료실 안쪽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남루한 행색, 얼핏 봐도 그다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픈 몸을 내보이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부분 의료봉사단에서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약도 준다니까 집에서 3시간 이상 걸어서 온 사람들이었다. 보건소에 들어선 봉사단 의료진들은 난감해졌다. 보건소 직원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있는 주민들 줄을 세우고 마분지를 잘라 만든 접수 번호표를 나눠 주며 질서를 잡아야만 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다. 갓난아기부터 80살이 넘는 환자들이 번호표를 내밀며 차례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저마다 아픈 부위를 가리키며 진료의사들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전문의들은 통역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이야기를 들어가며 질병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은 곳은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기본 진료 과목. 피부과 김형욱 교수는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생긴 피부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했다.

소아과 김영훈 교수는 진료를 받으러 온 어린환자들을 청진기로 진찰한 뒤 약을 처방하거나 구충제와 비타민, 영양제 등을 나눠줬다. 성모병원 보완의학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내과 최환석 주임교수는 경혈에 자석을 붙이거나 침을 놓는 자석요법과 침술요법 등 보완의학을 이용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처방전을 들고 보건소 입구에 임시 마련된 약제실로 향했다. 황보신이 수녀와 원사덕·이지은 약사는 이들의 치유를 기도하며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줬다. 유인자 수녀와 최혜란·조현숙 간호사는 환자들 혈압과 혈당, 체중을 측정하는 한편 혈액검사를 하고 주사를 놓아주면서 질병에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내외 의료봉사 경험이 많은 단원들은 혈압체크 등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피부질환 치료, 통증 완화 요법 등 전문적 진료까지 막힘이 없었다.

사랑의 의료봉사는 '사막에 내리는 단비' 그 자체였다. 진료를 시작한 의료진들은 화장실 한번 갈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밀어닥쳤다. 첫날에만 8시간 동안 진료하는데 주민 500여 명이 몰려왔다.

진료 이틀째인 9월 7일도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밤사이 눈이 내려 우리나라 초겨울에 해당하는 추운 날씨를 보였음에도 하루 종일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 모습은 삶에 대한 절박함 그 자체였다. 의료봉사단은 “몽골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에서 가장 여건이 좋다는 자갈란트 보건소조차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한국에서와 같은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보건소에는 국립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이나 임상경험 수준이 낮아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단지 상담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약값마저 비싸 가난한 주민들은 가벼운 상처에도 속수무책이다. 봉사단이 가져간 의약품 중 남은 것을 자갈란트 보건소에 남겨두고 온 것도 몽골의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소아과 등 6개 진료과목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최환석 교수는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은 양과 말고기 등 육류를 주로 먹는 식생활로 심한 비만과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가 많지만 약품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채소(섬유질) 섭취가 부족하다보니 변비와 장염, 위장장애 환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아과 김영훈 교수는 “어린이들도 영양결핍으로 각기병

환자가 많고 위생상태가 열악해 기생충 감염이나 결핵 등 후진국형 질병이 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몽골 어린이들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만 충분히 공급해 줘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성마비로 걷지 못하는 어린이도 유독 많았다. 신생아 때 발생한 황달을 제대로 치료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병이다.

안과는 노인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초원지대에 사는 몽골인들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은 편이지만 40대에 이미 노안(老眼)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무료로 나눠주는 돋보기안경이 단연 인기였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무작정 찾아온 노인들은 자신의 시력에 맞는 안경을 받아들고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준비해온 돋보기 250개가 이들 만에 동이 나자 안과 김은철 교수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유인자 수녀는 뒤늦게 찾아와 실망하는 환자를 보다 못해 자신이 쓰던 안경까지 내줬다.

김 교수는 “다음 의료봉사 때는 더 많은 장비를 갖고 와 백내장 환자들을 수술해 밝은 빛을 찾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한치동 교수도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해 임신부와 태아 건강상태를 살피고 부인과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분주했다.

바쁘기는 약제실도 마찬가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밀려드는 처방전에 취재차 동행한 기자도 본업을 미루고 처방약 조제를 도와야 할 정도였다. 진료팀이 약을 나눠주고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이문환 신부와 김영모 팀장은 마을 초등학교 어린이 800여 명에게 만화영화와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DVD를 보여주고 학용품과 운동기구를 선물했다. 또 보건소 한편에서 환자들을 정리하며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에게 사탕과 과자, 풍선인형을 만들어 나눠주자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셋째날, 조리 봉사자 육희수 봉사자가 요리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쉬고



문화행사를 위해 방문했던 인근 학교의 초등학생들. 한국의 문화에 대한 비디오 상영과 재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 상영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1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환자의 잘린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박성환 교수 2 몽골 자갈란트 바툼치칙 보건소의 현지 의료진

있던 의료진에게 보건소장이 급히 전화를 했다. 주민 한명이 나무를 자르다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는 것이다. 외과 박성환 교수와 최혜란 간호사, 윤학식 의료협회 사무국장이 황급히 보건소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절단부위를 제대로 지혈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린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고 냉장상태로 보존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몽골 의료진들이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기초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이 상당히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욱이 보건소에는 접합수술에 필요한 미세수술용 바늘과 현미경조차 없었다. 박 교수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후 절단된 손가락을 깨끗한 거즈로 싸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뒤 얼음을 채운 용기에 담아 울란바토르에 있는 큰 병원으로 보내 접합수술을 받도록 했다. 의료현장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때마침 가톨릭의료협회 의료진이 없었다면 환자는 영영 손가락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바툼치칙 보건소장은 “간단한 맹장수술을 받으려 해도 울란바토르의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봉사단은 이렇게 나흘간 모두 2,674명 환자에게 사랑과 희망의 인술을 폈다. 의사 6명이 각각 4~5분에 한 명씩 진료를 하는 강행군이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진료

에 시달려 피곤에 절었을 텐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인술을 베푸는 가톨릭의료협회 봉사단원들은 말 그대로 ‘백의의 천사들’이었다.

친절한 진료를 받고 귀한 약까지 얻어가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봉사단에게 고개 숙여 “바야를라(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인사를 전하러 일부러 방문한 터브(Tov) 도 난난슈렝 보건국장과 돌진수련 도립병원장도 “몽골 국민을 위해 한국에서도 유명한 의료진들이 찾아와 진료를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외과 박성환 교수는 “간단한 진료를 하고 약을 주었을 뿐인데도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양로원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이지은 약사도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약을 조제하느라 다리가 붓고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는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몽골 의료봉사단원들은 짧은 일정을 안타까워하며 이들이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 🙏